

W_F_029

사름 홀리는 도체비

2016년 10월 21일,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, 송정희 조사.
부신남(여, 1920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[조사자] 옛날에 혹시 도깨비, 도체비, 도체비 얘기는 안 들어 봅디가?

[제보자] 어?

[조사자] 도체비?

[제보자] 도체비는 구신, 구신.

[조사자] 게난 그거 흐나 골아줍서.

[제보자] 도체비는 사름 홀리는 거.

[조사자] 사람 홀렸던 허는 말 안 들어 봅디가? 어디 갓다그네 도체비 봇인디.

[제보자] 어디 갓다그네 들에 강 어둑언 오지 못허민, 밤이 오다가 도체비 홀령, 도체비가 헛게 닮은 사름 닮아. 그 사름이, 막, 꼽딱허게 출려그네 앞이 솔솔 강, 그 사름 만 미치젠 허민, 미쳐가민 그 사름은 멀리 가비연 못 미치곡, 조름에 사름은 암만 미치젱 헤도 못미치곡, 어떻사, 사름이 따라오는 중 알아그네 멀리 가 불지. 겟, 그 사름 가는냥 갓당, 어디, 카, 덤벌러레도 강 밀려불곡, 물러레도 밀려불곡. 경 허는 거지. 옛날 도체비는.

[조사자] 경행 사람 죽어마씸?

[제보자] 죽어 죽지, 죽기도 허지. 도체비 홀리당 어디, 밤중에 덤벌러레나 어디, 사름 못나올 때에 데껴 불곡. 옛날엔 경 헤낫지. 이제는 경 안 헤여.

[조사자] 이젠 경 안 헤마씸? 이젠 경 안 헤?

[제보자] 이제는 그렇게 안 허지. 이제는 그 히발류내여 돌, 궂인 거 옛날에도 보민 돌을 닥닥 웃아, 돌에 돌에 돌을 웃이민 돌?
로 내 나민, 것도 돌아나곡. 나이타라도 영 내영 히발류내 내나민, 내나곡. 그 그거 절로 영 허민, 궂인 거 사름 잘 아이뎅기는 디로 뭐, 옛날엔 뭐, 씨례기 엇이니 씨례기 헤당 나쁜 것덜 데껴 부는 고랑창이덜 싯지? 그런 거 데껴 분디, 그것이 글루 궂인 게 잘 나와.

나왕 그디 넘엉 오젠 허민, 그 목 넘어올 땐, 사름이 곱게 출려그네아, ?는대구
덕, 이디 한사 하르방 산 때, 벨방 가시아방 죽어네, 저 일포제 지네영, 벨방서 옛
날엔 차도 엊지. 걸언 이디 오난, 우란 그 뒷날 영장밧디 떡을 쳐 가젠, 막 열 시
리, 막 웬당 한 디라. 열 시리나 열 시리나 친디, 치젠 허난 밤세낭 솟덕에랑 첫
지. 웬당덜은 그거 기계 엊인 때난, 그 ?루 밀멍, 치멍 헤연, 이젠 풋씨 노멍 그
쏠?루 헤단 훈 시리 두 개로 치는디 하르방이 오라네 쁨짢허주만은, 할망신더레

“에, 어, 요 석굴락 오난 곱닥헌 예펜이 둘이가 앗아네, 헤옇게 출려네 석자수건 쓰곡, ?는대구덕 앞에덜 놓아네 그, 앗아 무시거렌 말 곧단 지 오라가난 일어산 저레, 산자이못에 펜짝더레 강, 지 오라가난 조름에 오라난게.”

경허난, 하르방 쯔쭈허주만은, 그 원서 어멍이 막 ھ쓸 거시기 허주게. 이제는 할망이

“벨것덜 다 봇저.”

“나이타로 이제 불 내영, 담배 먹고 돌 앗안 닥닥 웃아가난, 저 산자이못 펜뭐 설러레 가 베렌.”

집이 오랑 이젠 그 말을 할망?라 골으난, 할망은 옛날에 셋살이가 엇언, 지세장탱이에 세수도 허곡 허지 안 혀, 영 헹 그 앞이 밧거리에 산 때라. 한서 어멍네 온 후제, 그 벨방 가시아방 죽은 때산디 가시어멍 죽은 때산디, 지세장 지세장탱이 밧디서 난 거 영 에염에 낮이난, 하르방 우터레 바싹 메다 부찌부난

“이년은 무사 미쳤나?”

하, 하르방은 정신이 멀쩡허게 그, 그런 거시길 보아도, 헛겔 봐도, 이것이 헛게다 헤영, 그런 옛말, 옛말 들엉, 옛날에 그런 무신 거 궂인 거 보민, 돌을 막 웃곡, 남잔 담배먹는 사름은 옛날 그 돌 내영 나이타 체압으로 냏지. 이제는 폭 허민 나지만은 그땐 뭐 돌인가 담양 허곡, 경 안 허민, 부시헤여그내 내곡, 불콱콱 내여가민 그거 돌?를 내나곡 허민 돌아난덴 헤여.

겐 헹 그 할망 그 하르방은 ھ쓸 유식헌 하르방이난, 아 그디 무시거 잘 옛날에도 난덴 허난 알아네, 저 벨방 강 상도로 오다네 그걸 봐네. 그 예잘 봐네, 지일어상 하르방 오라가난 그자 일어상 오당, 하르방이 ھ쓸 천천히 오민 천천히 제기 오민 제게 경 헤렌. 겐 헷덴 요세 요것덜 나이타로 불내명 돌 앗안 닥허게 웃곡, 들어데끼곡 허멍

“나 몰르카부덴”

허멍 하르방 웨엿지. 경 헹 지펭이 짚엉 오단, 닥닥허멍 헤영 나난 저 동더레 질이 잊어. 그래 가 베렌. 그래 가난, 그레 가난 아 웃어완, 아 우린 막 은엉이어 명네영 밖거리에서 떡 치는디, 할, 할망 하르방은 오란 그 말을 할망신더레 골으난 그 장탱이. 무시거 부떳Zen 그 장탱일 데멩이 우터레 파싹 메다쳐 부난, 막 이젠 야단을 할망신더레

“무신 헛게비 청 오라그네아, 허죽거리는 거동 허멍.”

할망이 ھ쓸 할망도 하르방을 막 이기Zen ھ는 할망이라난, 경 그때 봐낫어. 겐 헹 그 말을 골양.

- 핵심어 : 구좌읍 세화리, 도체비, 헛게, 처녀, 돌?릇내, 헛게비, 하르방